

朝鮮 後期 建築圖說의 表現技法에 관한 研究

(山陵都監儀軌를 中心으로)

申 東 喆

(경원전문대학 교수)

1. 서론

건축도면은 건축적 사고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건축생산과정에 중요하게 자리잡아 왔다. 그러나 설계도서의 본질적 역할이 건축물을 완성하는 것으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 기록과 보존이 용이하지 않다. 특히 조선시대는 기술자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고, 체계적인 건축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건축도면은 인접 분야에서 회화적 차원의 기록화로 제작되었지 건축 전문가의 시각에서 취급되지 않았다.¹⁾ 더구나 조선시대에는 장기간 반복된 설계와 시공으로 건축기술이 보편화

되었기 때문²⁾에 설계도면의 제작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도면화 작업이 쉽지 않은 목조건축의 특성은 건축도면의 발전과 보전에 영향을 주어 역사적 도면사료의 획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건축교육과 생산과정에서 도면의 역할은 중대하며, 건축생산의 발달과정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건축적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써 건축도면을 재인식해야 할 필요를 절감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적 사고의 표현 수단으로써 건축도면의 발생과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법적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조선후기 건축생산과정에서 출현하는 건축도면의 유형별 표현적 특성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를 획득하려 한다.

연구자료는 山陵都監³⁾儀軌에 나타나는 建築

1) 조선시대 建築圖는 界畵라는 도구를 이용한 繪畵手法으로 圖書畵 畵員들에 의해 제작된다. “畵員들은 試取를 통해서 선발되는데 試驗科目은 實技로 竹은, 山水, 人物, 翎毛, 花草 중에서 2才가 있는 자에게 대나무를 1등, 산수를 2등, 인물과 영모를 3등, 화초를 4등으로 뽑고.....”(「大典通編」禮典 取才, 法制資料 第 8 輯(法制處), 1963, pp. 305~316) 徐基元, 「朝鮮朝 中期 圖書畵 畵員에 관한 研究」, 東國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p. 8(개인용) 임금의 御眞과 眞殿, 孔子, 朱子, 箕子의 肖像 및 그 사당, 功臣과 기타 士大夫肖像 그리고 여러 가지 中國故事를 그린...(이하 생략).....

(安輝浚, 「朝鮮王朝實錄의 繪畵史料」, 精神文化研究員, 1983, p. 6

2) 金東旭, 「朝鮮時代 營造組織 研究(II)」, 大韓建築學會誌 27卷 113號, 83.8, p. 26

3) “산릉도감은 산릉 일대의 토목공사, 정자각 등의 건축, 매장과 봉축, 각종 석물의 설치, 주변정화 등의 업무를 맡았으며, 도감 내에 그 업무를 총괄하는 도청 외에 三物所, 造成所, 石物小 등을 두어 업무를 분장하였다.

조선초기까지는 造墓都監이라고 칭했으나 1419년(세종 1년) 定宗의 국장 때 산릉도감이라고 불렀다. “

圖說⁴⁾을 대상으로 한다. 산릉도감의례는 조선 시대 國家統治理念으로 최고 덕목이라 할 수 있는 儒敎의 충효사상을 바탕으로 형성된 五禮 가운데 가장 중요한 通過儀禮로써 山陵을 조성하는 장엄한 과정을 기록한 官撰文書로써 상당량의 建築圖說을 포함하고 있다. 그 속에는 自生的인 圖面發生과 定着課程이 포착되므로 일련의 건축생산과정에서 야기되는 建築的 思考가 建築圖面으로 變換되는 표현기법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建築圖에 관한 선행 연구로써 繪畫的 觀點에서 이루어진 것⁵⁾과 建築的 觀點⁶⁾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본 연구의 귀중한 토대가 되었다.

본 연구는 조선 후기 산릉도감의례의 건축도설을 대상으로 建築空間의 表現技法을 文獻中心으로 연구한 것이다. 그 구성은 山陵造成에서 건축도설의 적용과정을 개괄하고, 건축도설의 발생과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圖面發生 以前段階, 圖面發生段階 및 圖面定着段階의 공간 표현범위와 기법적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고찰하였으며, 건축공간의 表現技法的 特性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본 고에서 사용되는 圖面名稱은 가급적 의례에 출현하는 圖說名稱에 따라 분류, 고찰하였으며, 연구진행상 필요에 따라 명칭을 가정하여 사용한 것이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조선 전기 이전의 건축

도설 발생과 적용형태를 밝힐 수 없는 것이다. 현존하는 관련자료의 특성상 조선 후기 산릉도감의례에 나타나는 건축도설만을 대상으로 그 표현기법적 특성규명에 주목하고 있어 전 분야에 걸친 일반화는 추후 충분한 연구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 建築圖說의 適用課程

조선 후기 최고의 산릉도감의례는 懿仁皇后 山陵都監儀軌(1600)로써 宣祖 妃의 陵寢을 조성한 기록이다. 건축도설은 나타나지 않았고, “各所應行條件”의 三物所와 造成所에 다소간 건축공간을 파악할 수 있는 記述內容을 포함하고 있다.

1632년 인조의 계비인 仁穆大妃의 山陵을 조성한 기록인 仁穆王后 山陵都監儀軌(1632)의 책머리에 封墳造成을 위한 한시적인 구조물로서 甕家圖를 도면명칭 없이 처음으로 편찬하고 있다. 이러한 도면기법은 120년간 미세한 표현 차이를 보일 뿐 형식적 변화는 없었다.

1757년 英祖의 元妃인 貞聖王后 山陵都監儀軌(1757)에서 翁가의 構造方式은 벽체와 지붕이 구별되기 시작할 뿐 아니라 甕家前面圖와 後面圖를 작도함으로써 표현방법과 범위에 작은 변화가 시작된다. 이 때까지도 도명명칭은 발생되지 않았다.

同年(1757) 肅宗의 第 2 繼妃인 仁元王后의 山陵에서는 翁가전면도, 翁가후면도라는 최초의 도면명칭이 출현함으로써 建築圖의 새로운 轉機를 마련하며, 1776년 英祖元陵의 陵寢造成까지 적용된다.

圖說表現의 획기적인 轉換點이 된 것은 正祖의 등극과 함께 조선시대 당쟁의 가장 큰 희생자 비명에 죽은 그의 생부 思悼世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호심에서 永祐園을 花山으로 천봉하는 기록인 莊祖顯隆園園所都監儀軌(1789)에서 찾아볼 수 있다. 園上閣, 陰道閣, 丁字閣이라는 건축형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설명하는 체계를 형성한 建築圖說이 등장한다.

吳洙彰, 「正祖健陵山陵都監儀軌 解題」, 『正祖健陵山陵都監儀軌 上』, 서울 大學校 奎章閣, 1995년 影印本

4) 建築圖說은 建築圖面과 說明을 함께 작성하여 圖形的 表現的 機能과 설명의 敘述的 機能을 결합하여 공간을 표현하는 방법이며, 본 연구에서는 경우에 따라 建築圖面의 概念과 혼용한다.

5) 1. 鄭炳模, 「園行乙卯整理儀軌의 版畫史의 研究」, 文化財 22, 文化財 管理局, 1989

2. 文化財 管理局, 東闕圖, 1991

3. 安輝發, 「옛 궁궐 그림」, 대원사, 1997

6) 朴益秀, 「朝鮮時代 營建儀軌의 建築圖 研究」, 全南大 大學院 博士論文, 1995

韓再洙, 「韓國建築史學의 變遷過程에 관한 研究」, 漢陽大 大學院 博士論文, 1987

3. 圖面發生 以前の 空間表現技法

산릉도감의궤에 圖面이 編修되기 시작한 것은 宣祖의 妃인 懿仁王后山陵都監儀軌(1600)가 유일하다. 이전의 사료의 존재 여부는 알 수 없지만, 陵寢制度가 고려시대에 완성되어 조선 시대에 답습되었고, 세종때 五禮를 정비하기 시작하여 문종때 완성되었다. 충효사상을 최대의 덕목으로 하는 統治理念에서 산릉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산릉사역은 일상적 건축행위가 아니라 단속적인 영조행위이므로 영조절차 및 공간표현에 관한 기록은 중요하게 요구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도형발생 이전에도 공간을 체계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3.1 空間表現에 나타나는 建築物 種類

의인왕후 산릉도감의궤에 나타나는 건축공간의 종류는 “各所應行條件”이라는 항목의 三物所와 造成所에서 발견된다.

삼물소는 산릉조영의 중심이 되는 봉분을 조성하는 부서로서 봉분조성과 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甕家와 隧道閣을 건축한다. 조성소는 靈幄殿⁷⁾을 비롯한, 丁字閣과 齋室造成으로 裕陵 假齋室, 三陵 齋室, 典祀廳 등과 부속공간 등을 건축한다.

3.2 建築空間의 表現技法

건축공간을 표현하는 방법은 건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건축물의 생산과정이 비교적 복잡하고 기술적 수준이 요구되는 것은 주요 建築構成部分을 體系적으로 기술하는 형식(이하 體系形이라고 함)을 갖추고 있으나 건축의 기술적 내용이 보편적인 것은 단순히 所要空間을 병열하여 기술하는 형식(이하 結合形이라고 함)을 취하고 있다.

7) 靈幄殿은 정자각과 함께 지어져서 祭禮儀式的 주공간으로 사용되었지만 “산릉에 영악전을 짓지 말고, 잠시 梓宮을 정자각에 봉안하게 하였으니, 역사가 커서 백성을 수고롭게 하기 때문이었다.”(중보 CD 조선왕조실록, 숙종 00/09/17(무인))를 볼 때, 폐지되고 그 기능을 丁字閣이 대신하게 된다.

분류 순위, 연도	山陵都監儀軌名	비고	
1	1600	懿仁王后山陵都監儀軌	×
2	1632	仁穆王后山陵都監儀軌	웃가발생
3	1649	仁祖長陵山陵都監儀軌	×
4	1659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	×
5	1684	明聖王后崇陵山陵都監儀軌	
6	1701	仁顯王后山陵都監儀軌	
7	1730	宣懿王后山陵都監儀軌	
8	1757	貞聖王后山陵都監儀軌	웃가전후면발생
9	1757	仁元王后明陵山陵都監儀軌	전후면(머치발생)
10	1776	英祖元陵山陵都監儀軌	
11	1789	顯陵園園所都監儀軌	누수정 발생
12	1800	正祖健陵山陵都監儀軌	길 유가기도발생
13	1805	貞純王后元陵山陵儀軌	가도리 배설발생
14	1816	獻廟王后顯降園園所儀軌	
15	1821	正祖健陵遷奉山陵都監儀軌	
16	1821	孝懿王后健陵山陵都監儀軌	×
17	1822	徽慶園園所都監儀軌	×
18	1830	翼宗延慶墓墓所都監儀軌	
19	1835	純祖仁陵山陵都監儀軌	
20	1843	孝顯王后山陵都監儀軌	×
21	1846	文祖綏陵山陵都監儀軌	
22	1849	憲宗景陵山陵都監儀軌	
23	1857	純元王后仁陵山陵都監儀軌	
24	1864	哲宗睿陵山陵都監儀軌	
25	1878	哲仁王后睿陵山陵都監儀軌	
26	1897	明成王后洪陵山陵都監儀軌	침전도, 침전배설
27	1903	孝定王后 景陵山陵都監儀軌	
28	1904	純明王后裕康園園所儀軌	

표 1. 산릉도감의궤 자료목록

이때부터 산릉의궤의 건축도설은 급격하게 변모되기 시작하여 1800년 正祖健陵山陵都監儀軌에서는 陵上閣圖, 隧道閣圖, 丁字閣圖를 포함한 帷門圖, 吉帷宮圖, 齋室間架圖, 假齋室間架圖, 內人間架圖 등이 발생되면서 조선 후기 건축도면표현의 전형이 마련된다. 이어서 1805년의 영조의 계비인 貞純王后山陵에서는 陵上閣立柱加道理圖가 나타나서 건축도설발생의 전체 과정이 마무리된다.

이 시기를 중심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건축도설은 20세기초까지 표현기법이 다소 세련되는 과정을 거치며 명칭의 변화를 나타낼 뿐 조선 후기의 고유한 圖面表現手法으로 정착된다.

체계형은 삼물소에서 시행하는 甕家와 隧道假家を 비롯한 조성소의 영악전, 정자각 등과 같이 건축물의 품위가 높고 중요한 경우의 기술에 사용된다. 반면에 결합형은 각종 齋室과 같이 공간의 성격이나 규모에 대한 객관화가 되어 있는 건물에 적용된다.

체계형의 표현방법의 골격을 살펴보면 1) 건물의 종류 2) 규모 3) 구조재 4) 부구조재 및 수장재 5) 지붕재 6) 내부시설 7) 마감재 순서로 표현하고 있다. 각각의 항목을 세부적으로 a. 재료의 종류 b. 수량 c. 크기(길이, 굵기) d. 재료의 공급방법 e. 기타 등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지만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甕家⁸⁾는 18개의 기둥으로 형성되는 원형으로 보편적인 間數로 나타낼 수 없어 建物規模가 생략되어 있다. 隧道假家(隧道閣)는 규모를 2 間으로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기둥, 보, 도리, 종보, 서까래 등과 같은 構造材는 수량과 재원을 상세히 기록하고 그 공급 방법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內部에 설치되는 石函 配置와 入盛目錄은 國葬都監을 참고하도록 부기하고 있다.

영악전과 배위청은 구조재와 수장재를 중요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부설되는 正殿의 御間, 夾間 및 神門에 사용되는 窓戶의 종류와 수량을 명시하고 있고, 내외벽 마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자각과 이에 따른 배위청은 종류, 규모, 구조재만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공간표현에도 공간적 위계에 따라 기술된 것으로 생각된다.

결합형은 각종 東宮齋室, 內官廳, 王子假

家, 守侍陵官假家 등과 같은 諸室 造成에 필요한 공간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써 단순히 間數만을 기록한 것⁹⁾과 主要空間과 함께 附屬空間을 결합하여 空間群 別로 기술한 것이 있다. 후자는 齋室 造成 항목에 나타나는 것으로써 1) 공간의 종류 2) 온돌방 3) 大廳 및 涼房 4) 退間 5) 廚房 6) 側間 7) 門 8) 下人房과 마구간 등을 필요에 따라 결합적으로 표현하지만, 온돌방이 대청에 우선하여 표현되고 각방은 間數¹⁰⁾를 기입하여 공간구성형태와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4. 圖面發生段階의 圖說表現技法

건축도가 산릉도감의계에 나타난 것은 1632년 인목왕후 산릉도감의계로써 도면명칭 없이 삽입된 甕家圖로부터 시작된다. 극히 초보적인 단계의 外觀圖로써 1757년 정성황후 산릉도감의계에서 도면표현범위가 옹가의 前, 後面으로 늘어나기까지 120년 동안 사용되는 느린 변화를 보였다. 같은 해 仁元王后(1757)의 陵寢에서 최초로 도면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건축도의 성격을 갖추기 시작한다.

1789년 正祖治下의 生父인 사도세자의 능원을 옛 수원 화성으로 천봉하는 기록인 顯隆園園所都監儀軌(1789)에서 새로운 園上閣, 隧道閣, 丁字閣의 建築圖¹¹⁾가 나타나게 된다. 建築圖說의 發生과 適用에 가속이 붙기 시작하자 1800년의 正祖健陵山陵

9) 東宮齋室 三間, 內官廳三間, 王子假家三間, 守侍陵官假家已上造成所入材木椽木 軍人山役
《前揭書》, pp.46 ~7

10) 裕陵假齋室 守陵官房左右溫突二間涼房二間前面退四間廚二間 房直房二間.....(중략).....水工房二間 砧家二間 雜物庫三間 柴炭庫二間 側間三間 陵齋室獻官房左右溫突三間 大廳五間抹樓 側間日間一閣門一坐 下人房馬廄并三間(이하 생략).....

《前揭書》, p. 51

11) 顯隆園園所都監儀軌의 도면명칭은 建物名만 사용하고 “圖”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으나 正祖健陵山陵都監儀軌(1800)부터 본격적으로 “圖”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8) ... 甕家所造 眞木十九介預備一箇并各長四十五尺本圖經布帛尺五寸以後軍有處斫伐取用橫結眞木六百箇軍人山役厚草芘八十番京畿黃海忠清等道上蓋九張付油芘一浮長與庫承塵白遮日 浮典設司大防木各長十七尺上下圓經六寸小防木二箇各長七尺上下圓經四寸并用眞木綿縮席子夫叱心四長與庫經結常布八尺濟用監蒿草飛乃一百番京畿生葛三同京畿江原
《懿仁王后山陵都監儀軌》, 奎章閣 圖書館 所藏, 1600, pp. 42~3

都監儀軌에서는 吉帷宮圖, 帷門圖, 齋室間架圖, 假齋室間架圖 및 內人假家間架圖가 새롭게 발생되어 山陵役事의 典型的인 圖說表現體系를 갖추게 된다.

4.1 建築圖說의 表現範圍

초기의 도면발생단계에는 산릉사역의 핵심인 봉분 조성을 보호하기 위한 甕家의 外觀圖를 圖形으로 표현한다. 그 밖의 구조물들은 도설발생 이전 단계와 대동소이한 설명적 표현방법으로 공간과 소요재료 및 공급방법을 기록하고 있다. 영조 말기에 이르러 옹가의 입면을 前後面으로 확대하는 표현범위의 변화는 일어나지만 표현기법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조대에 접어들면서 현릉원(1789)을 조성하면서부터 옹가의 건축형식에 명확한 변화를 보인다. 園上閣, 隧道閣, 丁字閣 등이 건축도면과 설명을 동시에 표현하는 도설체계를 갖추기 시작한다. 1800년 正祖健陵山陵都監儀軌에는 吉帷宮圖, 帷門圖, 齋室間架圖, 假齋室間架圖 및 內人假家間架圖와 같은 새로운 형식의 건축도면이 등장한다.

새로운 건축도면은 그 특성에 따라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建築形態에 관한 情報傳達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建物圖로써 전술한 설명과 함께 도설체제로 표현하는 형식이 있고, 둘째는 建築物의 空間構成에 관한 정보전달을 목적하는 것으로 도면만 제시되고 설명은 생략되는 형식이 있다.

능상각도, 수도각도, 정자각도 및 길유궁도는 전자에 속하고, 유문도, 간가도 등은 후자에 속한다. 또한 정자각 배설도는 표현기법상 평면적 공간배치정보와 설명을 사용하는 절충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4.2 建築圖說의 表現技法

圖面發生期の 건축공간표현에 있어서는 建築圖形의 등장으로 圖面表現의 轉換點을 이루었지만 120년 동안 매우 단순한 옹가도만 채택하고 있었으므로 도면으로써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따라서 설명적 표현기법은 도면발생 이전과 별다른 변화 없이 사용된다.

비록 단순한 초보적 형태의 도면이지만 옹가도는 단계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수도각, 정자각, 정자각 배설도, 길유궁도, 유문도 및 간가도 등은 18세기말 순식간에 발생, 정착된다.

가) 甕家圖의 表現技法

옹가는 능침조성의 중핵인 봉분조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陵上閣이다. 건축은 삼물소가 담당하며, 한시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취급된다.

절대권력자의 영면을 또다른 삶의 형태로 간주하여 사후의 거처를 마련하는 중요한 통과의례로써 陵寢을 조성하는 象徵의 行爲¹²⁾에 따른 것이며, 옹가는 비일상적인 특수한 건축형식에 속하므로 우선적으로 도형화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고 본다. 비록 변화속도가 매우 느렸지만 옹가도는 다음과 같은 4단계에 걸쳐 점진적인 형태변화를 나타낸다.

첫째, 발생단계의 甕家圖는 벽체와 지붕이 미분화된 甕器를 얹은 듯한 원시시대 건축형태의 도형이다. 45척 길이의 18개의 기둥을 휘어서 頂上을 결구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를 참나무로 단속적으로 지그재그로 橫結한 骨組의 外觀은 부분적으로 입체감을 유발하는 애매하며 단순하게 표현된다. 도면에는 명칭과 정보도 전혀 기입되지 않고, 필요한 소요 재료와 수량에 관한 정보는 三物所

12) 산릉조성에 관계되는 제 명칭은 임금의 관을 梓宮, 그 보관함을 攢宮, 현실을 玄宮, 석곽을 外梓宮 및 신위를 쓰는 장막을 吉帷宮이라고 하여 모두 宮殿으로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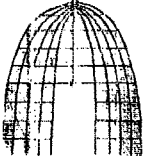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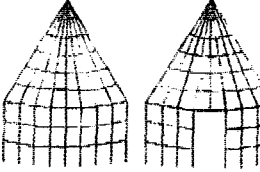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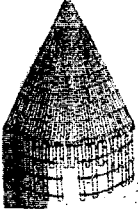
	仁穆王后山陵都監儀軌 (1632)	明聖王后山陵都監儀軌 (1684)	貞聖王后山陵都監儀軌 (1757)	顯隆園園所都監儀軌 (1789)
圖形形態				
圖形特性	1. 회화성 도면 2. 약간의 입체성	1. 추상적인 입면형 2. 부재의 단선표현	1. 추상적인 입면형 2. 부재의 복선표현	1. 부감투시형 외관 2. 진술한 구조표현
비 고	1. 최초의 웅가도		1. 표현범주의 확대 2. 웅가전. 후면도	1. 최초의 원상각 2. 도설체제완비

표 2) 圖面發生期の 甕家圖의 變化課程

甕家所入 등에 요약하여 설명적으로 표현한다.¹³⁾

둘째 단계는 明聖王后山陵都監儀軌(1684)의 웅가도로써 기둥과 횡결재를 단선으로 그린 극히 추상적인 입면도로써 입구측의 형태를 그리고 있으나 구조형태만 추상적으로 표현하며, 현재의 정투상도와 근사하지만 구체적인 발생 원인은 알 수 없다. 이 방식은 仁顯王后(1701)와 宣懿王后(1730)에서 반복 사용되며, 후자는 최하부 횡결재가 표현되지 않고 있다.

셋째 단계는 貞聖王后(1757)와 仁元王后(同年)의 산릉에서 2가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난다. 그 하나는 웅가의 건축구조가 없어

놓은 웅기형에서부터 벽체와 지붕이 절곡되는 구조적 변화를 나타내는 것¹⁴⁾과 도면표현 범위가 전면에서 전후면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英祖元陵(1776)까지 나타나며, 부재의 표현수법도 單線에서 複線으로 바뀌면서 횡결재를 만곡시켜 입체적인 표현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

넷째 단계는 顯隆園園所都監儀軌(1789)의 園上閣에서 나타나는 형식으로 결구된 골조를 俯瞰한 건물도와 설명으로 구성된 건축도설로 표현된다. 원통형의 벽체와 원추형의 지붕 서까래로 구성된 원상각은 내부기둥의

13) 甕家所入 油芘草屯浮飛介已入總數中
眞木大柱十九柱預差 一條各長四十五尺或五十尺本圓徑五寸
橫結眞長木四百二十介
毛厚草屯七十三上覆
蒿草浮飛介十 下遮(이하 생략).....
《仁穆王后山陵都監儀軌》, 奎章閣所藏, P.86

14) 1. 웅가 건축의 기술적 변화가 발생하는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전까지 웅가에 사용된 기둥은 참나무(眞木)로써 길이 45 ~ 50尺, 원경 5寸 이상을 사용했으나 長木의 획득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적 변화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기둥과 서까래의 접촉 부분이 단순 명료하게 표현된 것의 구조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 도면표현기법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배열이 흐트러졌지만 전체적으로는 진술한 구조형태를 단아하게 그린 획기적인 도면이라 할 수 있다. 圖面說明¹⁵⁾의 체계도 정비되어 1) 건물의 종류 2) 주요구조재 3) 부구조재 4) 주요결구방법 5) 지붕재 및 벽재 6) 창호 등의 순으로 기술하고, 각 항목별로 a) 부재의 종류 b) 재료명 c) 수량 e) 재원(길이 및 원경) d) 사용척도 및 기타 등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도면발생전단계의 공간표현기법을 한층 더 세련되게 체계화한 것으로 건축도면과 정보가 相補的으로 결합되어 효과적인 공간표현 기법적 체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

나) 陵上閣立柱加道理圖의 表現技法

능상각 입주가도리도는 능상각을 표현하는 도면으로 이름과 같이 기둥과 도리를 결구하는 기둥배열과 단선의 도리를 평면형태로 간단하게 그린 도면이다. 貞純王后(1805)의 산릉에서 처음 보이는 새로운 도면형태로 원형의 좌현이 절단된 평면형태를 나타낸다. 그러나 설명에 나타나는 도면목적은 도면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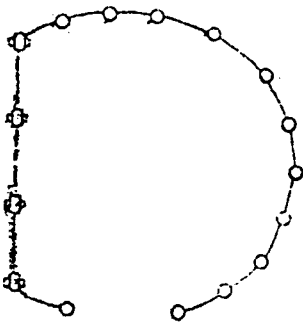


그림 1. 陵上閣 立柱加道理圖(貞純王后, 1805)

15) 閣俗名寔家用松木爲柱十八長十四尺圓徑六寸上端一尺圓尖作凸徑寸八分 ○度用營造尺下井同環立於 瑩域之外當南作門其間倍他柱間以圓棟俗名道里十八長九尺圓徑六寸....(이하 생략).....

《顯隆園 園所都監儀軌》, 奎章閣 所藏, 上卷 P. 1-2

이 암시하는 것과는 달리 기둥과 도리의 결구방식을 의미하는 것 보다 인접한 先陵을 손상하면서 入地設柱할 수 없는 특별한 건설 조건에 대응하는 용가의 설계를 표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¹⁶⁾

다) 隧道閣圖의 表現技法

隧道閣은 봉분의 外梓宮과 연결되는 언도의 조영을 보호하기 위한 한시적인 구조물로써 원상각(능상각)과 더불어 顯隆園(1879)에서 최초로 나타난다. 이 때의 도형은 三樑構造의 입면과 지붕 평면도를 결합시켜 전체적인 형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고 있으나 지붕 전후면의 구배가 지나치게 달라서 어색하다. 설명에는 5樑¹⁷⁾ 二間半이라는 기록과 도면이 상치되어 도면을 그린 화원의 건축적 지식을 가름할 수 있다.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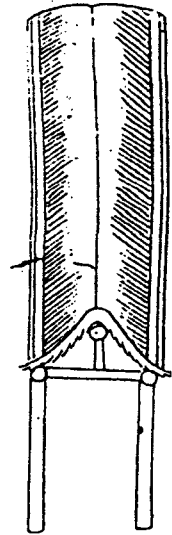


그림 2. 隧道閣 (顯隆園 1789)

正祖健陵(1800)에 나타나는 것은 圖說의 내용이 일치될 뿐만 아니라 도면의 표현이 매우 세련되고 지붕재료의 표현 등에서 섬세하게 표현하는 발전을 보인다.

16) 閣俗名寔家用松木爲柱十四而十二柱則各長十六尺入地三尺丈夫一尺二柱則各長十三尺丈夫一尺本用十八柱而今用十四者以 先陵邊之近之故不立四柱故也.....(이하 생략).....

《貞純王后山陵都監儀軌 下卷》, 奎章閣 所藏, P. 2-4
17) 園上閣南面當中連建隧道閣六柱長十七尺五樑二間半...《顯隆園園所都監儀軌 上》, 奎章閣 所藏, P. 1-3

라) 丁字閣圖의 表現技法

정자각은 산릉에서 聖域과 俗域의 매개공간으로써 후면은 神門을 통해서 陵上空間과 연결되고 전면은 拜位廳이 개방되는 儀式空間이다. 문헌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지만 이북에 있는 恭愍王과 王妃의 玄正陵을 살펴보면 고려시대에 정자각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¹⁸⁾

정자각은 造成所에서 조영하게 되며 陵寢의 儀式空間으로 甍상각이나 수도각과는 달리 영구적으로 건축¹⁹⁾되는 중요한 공간이다.

丁字閣圖가 처음 나타나는 것은 顯隆園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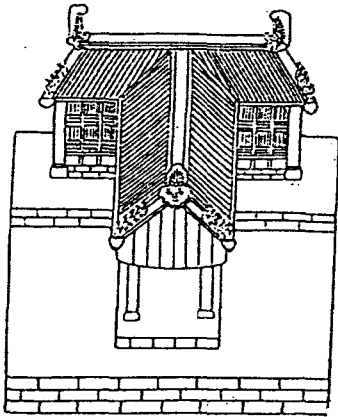


그림 3. 丁字閣 (顯隆園園所都監儀軌, 1789)

所都監儀軌(1789)다. 도면형태는 平面展開法²⁰⁾과 입면도, 지붕 평면도를 결합하여 표현한다. 정전은 기와골과 초석 상부는 다소 입체적인 표현이 가미된 듯하지만 현재의 정투상 입면도에 가깝게 나타냈고, 배위청은 입면과 지붕 평면을 결합하여 부감도 처럼 보여서 지금의 투시도적 관점에서 보면 어색

18) 李英, 「朝鮮時代 王陵陵域의 建築과 配置形式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p. 81

19) 假丁字閣은 산릉에서 附廟할 때, 王妃의 神位를 移安또는 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한시적 건축물로 3년이 지나면 철해한다.

20) 정자각의 배위청과 월대를 정투상한 입면과 평면을 별도의 조작 없이 수평적으로 연결하여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하다. 그러나 정자각의 전체적인 표현은 건축공간구성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형태적 왜곡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기법이다. 설명은 도면발생 이전단계의 설명적 표현기법을 더욱 세련된 체계로 구성하여 1) 종류 2) 규모 3) 柱高 4) 형태 5) 마감 등을 정전, 배위청 순으로 설명할 뿐 아니라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기입하고자 할 때는 小子로 부연하고 있다.²¹⁾

마) 丁字閣 排設圖의 表現技法

정자각 배설도는 정자각내에서 의식진행에 필요한 찬궁과 제상 및 병풍 등을 배치하는 실내 기물의 배치도로서 貞純王后(1805)에서 최초로 나타난다. 도면의 표현기법은 축척개념 없이 정전과 배위청의 윤곽을 단선으로 그리고 배설 기물을 도형과 문자로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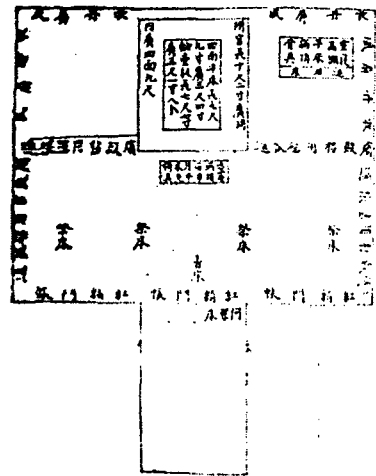


그림 4. 假丁字閣 排設圖 (貞純王后, 1805)

바) 吉帷宮圖의 表現技法

이 도면은 丁字閣의 西側에 가설하는 한

21) 丁閣三間內架二大椽左右各懸三柱東西廣三十八尺正中十四尺左右二間各十二尺南北長二十四尺柱高十尺一寸正室之南當中連建二間拜位廳南北長二十四尺東西廣十四尺柱高十尺六寸形如丁字并施丹廡《顯隆園園所都監儀軌》, 奎章閣, p. 1-13

시적 帳幕宮으로 題主儀式²²⁾하는 공간으로 正祖健陵(1800)에서 최초로 발견된다. 合竹柱를 네 귀에 세우고 仰帳을 설치한 것으로 표현기법은 중앙으로 수렴하는 부감투시로 그려진다. 기타 위치, 규모 및 내부시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문자로 설명하는 도설적으로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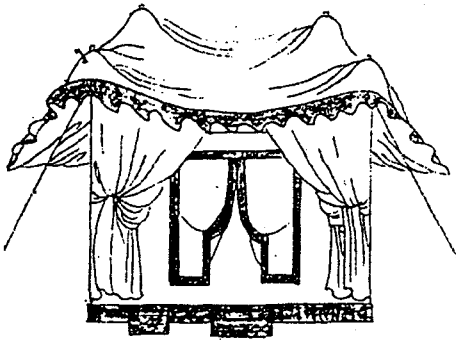


그림 5. 吉帷宮圖 (正祖健陵, 1800)

사) 帷門圖의 表現技法

유문도는 산릉을 造成領域에 속하는 甕家와 丁字閣 및 守僕廳 등의 배치를 나타낸 복합적 용도의 도면이다. 이 도면도 正祖健陵(1800)에서 최초로 발견되는 것으로 표현방법에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 전체적인 공간 영역은 外布城으로 둘러싸며, 그 속에 內布城을 두어 陵上空間, 丁字閣空間 및 守僕房空間으로 구분된다. 표현수법을 살펴보면 남북을 주축으로 강한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制度化된 空間設計方法에 기인한 法式性에 기인하는 것이다. 실체는 공간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認識主體를 중심으로 공간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건물의 표현에 있어서도 그 건물과 공작물의 특성이 잘 전달될 수 있

게 작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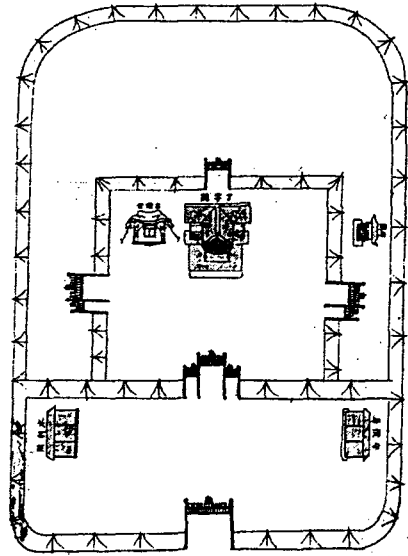


그림 6. 帷門圖 (正祖健陵, 1800)

아) 間架圖의 表現技法

間架圖는 비교적 규격화된 個室空間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齋室, 假齋室 및 나인가가 등의 廳房과 건물 등을 담장과 함께 單線 平面形態로 표현하고 담장에 설치된 중문은 입면형태로 뉘어서 표현하고 있다. 間架는 건축물의 공간규모를 설명할 때 흔히 사용된 용어²³⁾로써 도면형태로 산릉의궤에 적용되기는 正祖健陵(1800년)의 재실간가도, 가재실간가도 및 나인가가간가도 등이 최초의 사례이다. 19세기초에 씌어진 牧民心書에는 행정관리가 官衙를 수축하기 위해서는 間架圖²⁴⁾를

23) 조선왕조실조의 검색에서 52차례 사례가 출현한다.
 24) “수령이 관아를 수축하려면 먼저 간가도를 작성하고 가인에게 은밀히 시켜 名工의 양해를 얻어 채목의 수를 열거한다. 말하자면, 대들보 몇 개, 도리 몇 개, 기둥 몇 개, 서까래 몇 개, 문지도리, 빗장, 문지방 등 그수를 각각 열거한다..... <牧將繕廡 先作間架圖 密令家人 在京名工議之 乃條列材木之數 曰 大樑機介棟機介柱機介椽機介椳泉店○ 各列其數.....>.” 丁若鏞, 『牧民心書』 卷之四十, 繕廡 工典 第三條, 서울 大學校 奎章閣 圖書館

22) 下 玄宮한 뒤 神位를 기록하는 儀式

그러야 한다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19세기초가 간가도의 圖面表現形式이 만들어 지는 時點으로 생각된다.²⁵⁾ 이 도면의 표현방법은 엄격한 축척 개념은 없고, 間이라는 목조건축 고유의 모듈 개념을 사용하여 유사한 반복공간을 간단한 시각적 수단으로 표현한 것이다. 간가도는 도면만으로 표현하지만 선과 문자에 의한 정보표현과 도면에 기록된 문자의 방향과 중문의 입면이 그려진 방향 등으로 건물의 주요입면과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적인 표현기법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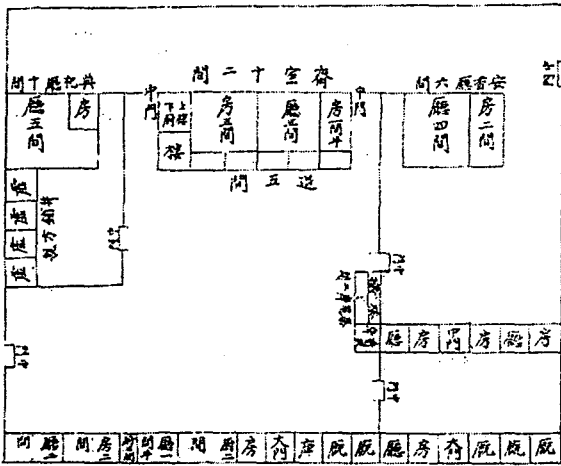


그림 7. 齋室間架圖 (正祖健陵, 1800)

간가도가 채용되면서 문자에 의한 공간 설명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때 매우 효과적인 공간표현방식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본다.²⁶⁾

25) 正祖時代 조선 후기 최대의 建設工事였던 1794년부터 1796년 사이에 이루어진 華城城役儀軌(1801)에는 다양한 도면표현과 도면수가 나타나지만 間架圖는 없다.

《華城城役儀軌 上中下》, 奎章閣 圖書館 所藏
 26) 間架圖의 적용 이후, 空間說明은 급격히 줄어들고, 間架圖의 木物, 鐵物의 종류만 항목별로 기입한다.
 《正祖健陵山陵都監儀軌 下》, 서울 大學校 奎章閣圖書館 발행, 影印本, 1995, pp. 31 ~ 59

5. 圖面定着期の 圖說表現技法

19세기 박두에 완료된 조선 후기 建築圖說體制는 20세기초까지 100년 동안 서서히 전형화되며 정착한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도면형식은 생겨나지 않았지만 전술한 건축도면의 표현기법이 성숙될 뿐 아니라 설명기법에서 形態 記述과 施工技術描寫 및 體系가 정비되는 변화를 보인다.

5.1 建築圖說의 表現範圍

17세기 초반에 건축도가 산릉의궤에 적용되기 시작하여 125년간 소극적으로 사용되다가 英正祖時代를 지나면서 건축도설의 양식적 기초를 형성한 뒤 급격하게 발전하고 적용되기 시작한다.

건축물의 도면화 범위는 능상각도, 수도각도, 정자각도, 정자각 배설도를 비롯한 유문도, 길유궁도 및 간가도 등이 적용된다. 이 때부터의 건축도설은 축적된 풍부한 선례를 이용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보이기도 한다. 반면, 과거의 전형적인 표현사례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技術的 停滯現象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圖面表現形態에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정작각도로써 발생기의 입면적 복합표현 수법에서 투시적 표현기법으로 변화된다. 둘째는 설명 및 정보기입방법에 다소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능상각도, 간가도에서 발견된다. 셋째, 구조방식의 변화가 도형적 표현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수도각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배설도, 길유궁도 및 유문도는 거의 변화 없이 습관적으로 적용되지만 표현의 대상을 관찰자 중심으로 전개한다는 점이다.

5.2 定着期 建築圖說의 表現技法

18세기 말엽부터 19세기초에 建築圖說의 대부분이 發生, 典型化되면서 도면표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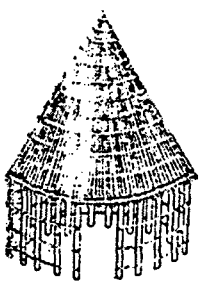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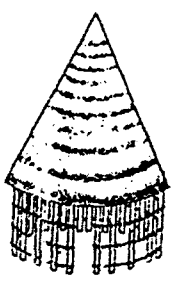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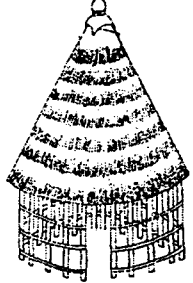
	正祖健陵山陵都監儀軌 (1800)	顯慶王后山陵都監儀軌 (1816)	翼宗延慶墓基所都監儀軌 (1830)
圖形形態			
說明特性	1. 발생기의 顯隆園 동일 2. 閣으로 설명	1. 직경과 원주로 규모표현 2. 閣으로 설명	1. 건물의형을 서술하기 시작 2. 閣制로 설명
비 고	1. 구조중심의 형태표현(현릉원, 정조건릉, 순조인릉 등)	1. 지붕마감으로 형태표현	1. 지붕정부의 봉우리(硯勢) 장식을 시작

표 3. 정착기의 능상각 비교표

법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이 때도 발생기와 같이 건축도면기법과 공간설명기법의 차이를 고찰할 수 있으나 도면의 종류에 따라 발전방향과 속도를 달리한다.

가) 陵上閣圖의 表現技法

현릉원(1789)에서 옹가가 園上閣으로 명칭과 형태가 변화된 뒤, 正祖健陵(1800)의 陵上閣圖에 적용되면서 도면표현과 공간설명에 대한 技法的 發展이 생겼다. 도면정착기의 도면표현기법을 개발하면 作圖視點이 건물 외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감투시를 사용하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초기에는 건물구조를 진술하게 볼 수 있게 構造中心으로 그렸지만(현릉원, 정조건릉, 순조인릉) 후기에 이르면서 골조중심의 표현기법은 지붕재를 정교하게 표현하는 마감 중심으로 변하고 지붕의 정부에 파충형장식(硯勢)가 설치되기 시작한다.

도면표현기법을 세밀하게 분석하면 건축내용과 도면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공간을 표현할 때 정확한 축척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다. 주로 유사한 전례를 조사하고 준비된 참고자료에 따라 도면을 제작하므로 그 표현수법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간설명기법은 도면발생기에는 표현되지 않았던 능상각의 규모를 표현하려는 시도가 정순왕후의 산릉에서부터 시작된다. 처음에는 직경을 표현하기 시작²⁷⁾하고, 顯慶王后(1816)부터는 직경과 원주를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일반화된다.²⁸⁾ 또한 翼宗延慶墓(1830)부터는 “閣制上尖下濶如覆甕形一名甕家後高前低有建瓴勢”라는 건물의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수법을 개발하고, 哲宗睿陵(1864)부터는 “閣制上尖下濶如覆釜形一名甕家後高前低有建瓴勢”로 미묘한 표현상의 변화를 주지만 계속 사용된다.

27) “○甕家內南北徑四十五尺子金井下隅正中 東至徑二十二尺五寸西至徑十四尺”
《元陵山陵都監儀軌 下》, 奎章閣 圖書館 所藏, p. 2-4
28) 이때 사용되는 원주율은 2.86 ~ 3.0의 범위에 있다.

나) 陵上閣立柱加道理圖의 表現技法

전술한 바와 같이 정순왕후(1805)의 산릉에서 최초 출현하여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顯宗景陵(1849)과 哲仁王后睿陵(1878)에서만 사용된다. 예능에서는 “加道理圖”라고 간략하게 적고 있다. 원형평면의 절단면의 위치가 바뀐 것을 제외하고 도면기법의 차이는 없다. 더구나 설명부분을 살펴볼 때, 그 사이에 건물의 규모나 형태를 설명기법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조건²⁹⁾이 같은 정순왕후의 사례를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哲仁王后의 경우에는 가도리도를 적용하는 아무런 이유없이 도면만 제시되고 있다

다) 隧道閣圖의 表現技法

수도각도는 2간 반의 직사각형 형태로 규모가 거의 일정하고 형태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특별히 표현상의 발전을 찾아보기 힘들다. 1830년 翼宗延慶墓는 陵上閣과 결합된 형태로 그려지는 독특한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도면 설명기법을 비교 고찰하면 발생기 현릉원의 설명형태를 정조건릉(1800)에서 반복사용하고, 1805년 정순왕후의 수도각에서 설명형태가 마련된 뒤 거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

라) 丁字閣圖의 表現技法

丁字閣은 거룩한 陵上空間領域과 세속적인 守僕空間 사이를 결합하는 聖域과 俗域의 媒介空間이며 祭禮儀式的 중심이 되는 영속적인 건물이다. 예의법도를 존중하던 유교적 가치관으로 보면 능침의 권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건물로 이미 고려시대부터 그 형식이 마련되고 조선시대에는 엄격히 적용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도설의 표현에서도 중요한 대상이 되었고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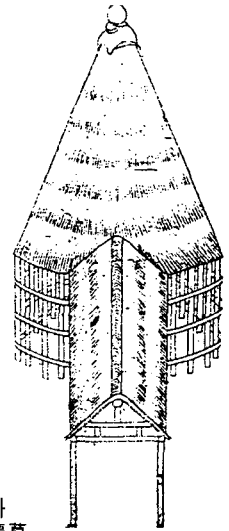


그림 8. 隧道閣圖가 陵上閣과 결합된 形態(翼宗延慶墓 墓所都監儀軌, 1830)

의 정착기에 가장 표현상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 표현기법은 크게 3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발생기의 월대의 평면전개법과 정전의 입면도 및 배전의 부감투시를 통합한·방식으로 익종연경묘에서 발견된다.³⁰⁾ 둘째는 정조건릉(1800)에서 나타나는 전면으로 수렴하는 투시도형식으로 그려진 건물도로써 한동안 정착하지 못하다가 1835년 純祖仁陵에서부터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전형적인 도면표현방식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여 건축형식이 寢殿으로 변화여도 도면표현방식은 변하지 않고 적용된다. 셋째는 전술한 2 종류의 과도적 형태로서 정전 월대를 중앙 수렴투시하는 방식으로 현경왕후(1816), 정조건릉천봉(1821)에서 나타난다.

정자각의 도면설명기법 비교표에서 建築圖說이 작성된 모든 정자각과 가정자각은 약간의 柱高 차이를 나타낼 뿐 소요재원이 동일하여³¹⁾ 制度化된 것으로 보인다.

29) 현종경릉의 능상각도 설명에서는 “ 본래 18주나 이변에 14주를 쓰는 것은 本陵邊에 가까우므로 4주를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本用十八柱而今用十四者以 本陵邊之近之故不立四柱故也>”라고 부지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30) 翼宗延慶墓墓所都監儀軌(1830)에서 나타나며 顯隆園에 비해서 월대의 방전표현과 正殿의 기왓골 표현이 규칙적이지만 전정의 창살 표현과 감상 등 상세 표현은 생략된다.

31) 20세기 말경 寢殿으로 건축형식이 변화되면서 배위청이 없어지고 正面 5間, 側面 4間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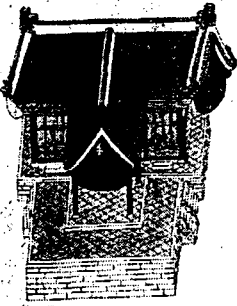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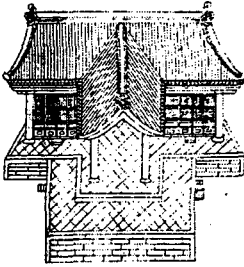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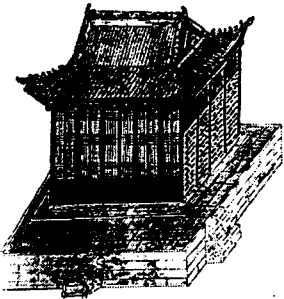
	正祖健陵山陵都監儀軌 (1800)	顯慶王后山陵都監儀軌 (1816)	明成王后洪陵山陵都監儀軌 (1897)
圖形形態			
說明特性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명이 전형화됨 2. 마감까지 구체적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명이 전형화됨 2. 마감까지 구체적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翼宗延慶墓(1830) 이래 開基부터 차례로 설명함 2. 間數 및 柱間, 柱高가 달라짐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자각과 가정각도가 공존 2. 전면수림 사평행 투시 3. 1835년(純祖仁陵 이후)부터 모든 정자각과 침전에 적용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자각 발생 때 보다 정전의 월대만 수림투시로 작도함 2. 정조건릉봉천도감의궤는 정조건릉(1800)의 도형을 따르지 않고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침전으로 건물형식이 변화됨 2. 평행 경사투시도로 작성 3. 1904년 純明王后山陵都監儀軌에서도 사용됨. 4. 碑閣圖도 같은 형식으로 제작

표 4 . 定着期的 丁字閣(假丁字閣)圖 比較表

마) 丁字閣排設圖의 表現技法

정자각 배설도는 19세기말에는 침전조 배설도라는 명칭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도설발생 이래 뚜렷한 변화없이 그 대로 적용된다.

바) 길유궁도의 표현기법

古帷宮은 題主儀式을 거행하는 仰帳의 가설 장막궁으로 도설 발생이래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사) 유문도의 표현기법

정조건릉(1800)에서부터 도면화되기 시작한 유문도는 산릉조영의 건물의 배치와 형태를 구조물의 성격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면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도면발생기에는 용가와 곡장은 표현되지 않고 있으나 현경왕후의 산릉에서부터 능상각은 부감투시로 그려지고, 곡장은 평면형태로 표현되기 시작하여, 文祖綏陵에 이르면 곡장까지 부감투시로 나타낸다. 공간의 표현방법은 마당을 중심으로 건물의 인식주체가 구조물의 성격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도한다.

아) 간가도의 표현기법

정조건릉에서 시작된 간가도는 재실, 가재실 및 나인가가 등에 충실하게 적용된다. 발생단계부터 공간과 담장을 단선으로 작도하는 비교적 단순한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20세기초까지 지속되어 변화가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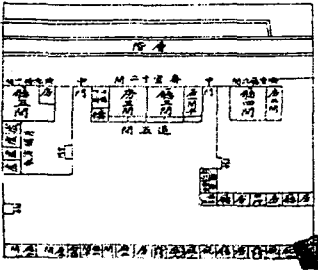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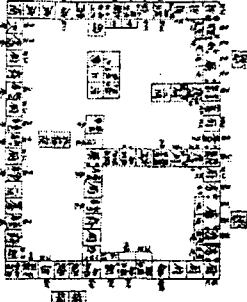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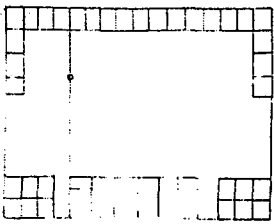
	翼宗延慶墓基所都監儀軌 (1830)	純元王后仁陵山陵都監儀軌 (1857)	哲宗睿陵山陵都監儀軌 (1864)
圖形形態			
說明特性	1. 실명, 간수, 부속공간 표기 2. 공간별 규모 표기	1. 실명, 간수, 부속공간, 창호를 자세히 표기	1. 간가형태만 나타냄 2. 문자정보의 기입이 없음
비 고	1. 가장 보편적인 간가도 표현형태 2. 가재실, 나인간가도를 재실보다 구체적으로 기입	1. 가장 충실한 정보표현, 창호 및 바닥마감을 표기함 2. 현종경릉(1849), 순원왕후(1857)를 정점으로 쇠퇴함.	1. 철종예능(1864)년 이래 도면 표현이 점차 거칠어짐

표 5. 定着期の 間架圖 表現技法 比較表

다. 도면 내에 문자로 건물군의 종류별 명칭과 규모를 표현하기도 하며³²⁾ 실명, 간수, 부속공간, 창호 및 마감 등을 기입하여 정보전달 효과를 높이도록 배려하고 있다.

도면정보의 기입정도는 가재실간가도와 나인간가도 등이 재실간가도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지며, 그 변화추이는 19세기 전반기는 점진적으로 기입정도가 증가되어 현종경릉과 순원왕후의 산릉에서는 가장 완성된 정보기입이 형성되지만, 철종예능에서는 전혀 정보를 기입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주요한 실명만 기입한다.

32) 正祖健陵山陵儀軌(1800), 正祖健陵遷奉山陵儀軌(1821), 翼宗延慶墓基所都監儀軌(1824)은 건물군명과 규모를 기입하며, 明成王后山陵儀軌(1897)와 純明王后山陵儀軌(1904)은 건물군명만 기입한다.

6. 建築圖說의 表現技法의 特性

조선 후기 건축도설의 표현기법을 도면 발생전단계, 도면발생단계 및 도면정착단계로 구분하여 공간표현범주와 건축도설의 표현기법을 고찰하였다.

의인왕후산릉도감의궤(1600)가 최초로 편찬되면서 건축도면은 없지만 건축공간을 체계적으로 표현하려는 형식적 틀을 마련하고 있었다. 현재로서는 의인왕후 이전에 기록된 산릉도감의궤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 정확한 내막을 알 수 없으나 고려말에서 조선 초까지는 墓地都監이라고 불렀으나 1419년(세종 1년) 定宗의 國葬 때부터 山陵都監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세종 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한 “五禮”의 편찬은 1451년(문종 1년)에 완료되고 1474년(성종

5년)에 “國朝五禮儀”가 완성되었다. 이러한 엄격한 제도적 구조 속에서 전례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산릉조성의 공식적 기록이 늦어진 것으로 생각된다.³³⁾

이러한 제도적 정체성을 고려할 때, 1632년 인목왕후산릉에서 초보적인 옹가도가 발생했다는 것은 건축생산발달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비록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엉성하기 짝이 없지만 생산방식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사실이라 하겠다.

옹가도가 등장한 이후 1805년 능상각입주가도리도가 발생되기까지 173년이 걸렸으며, 157년 동안은 옹가도의 발생과 변화에만 한정되어 이루어 졌지만 1789년 현릉원이래 16년 동안 대부분의 건축도설이 발생, 적용, 전형화되는 급속한 변화를 보인다.³⁴⁾

도면의 정착기에는 새로운 도면형태는 발견되지 않고, 전례에 따라 건축도설을 반복 적용하면서 세부표현기법과 설명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표준화된 도면양식을 구축하면서 20세기 초반까지 발전한다.

지금까지 고찰한 결과를 종합하여 조선 후기 건축도설의 표현기법의 전체적인 특성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으려고 한다.

첫째, 공간의 인식주체가 공간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산릉의례에 출현하는 건축도설은 도면중심으로 건축을 표현한 것이 아니며, 건물 중심으로 도면을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건물이나 공간을 표현할 때, 공

간인식의 주체의 시각으로부터 형태파악이 용이하도록 표현기법을 채택하는 것이다. 도면정착기의 능상각도, 수도각도, 정자각도 및 길유궁도는 건물형태의 전모 파악이 쉬운 부감투시형태를 취하고 있고, 배치도 격인 유문도는 위치정보와 형태정보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공간의 통합적 이해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공간에 접근하는 인식주체의 관점에 맞추어 인식되는 건축형태를 통합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도면표현의 위계성을 가진다. 능상각도, 수도각도, 정자각도, 정자각 배설도 등과 같이 陵上空間, 정자각 공간 및 수복공간의 순으로 기술하고, 丁字閣圖이 경우 역수렴투시도법을 사용하여 정전이 배위정보보다 크게 보이도록 하고, 특히 배설도의 경우는 축척을 고려하지 않고, 배위정보보다 정전을 강조해서 작도한다.

셋째, 실용적 목적에 따라 표현한다. 건축의 외형적 이해가 필요한 능상각, 수도각, 정자각 등은 형태정보를 그림으로 기술정보를 설명으로 표현하여 상호보완하고, 재실간가도, 가재실 간가도 및 나인간가도 등 공간의 위치정보를 도형적으로 나타내어 쉽게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영조조건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능상각 입주가도리도를 사용하여 현장조건에 적합한 건축정보를 제공한다.

넷째, 공간정보의 통합적 표현을 중요시한다. 평면 및 입면형태를 함께 표현³⁵⁾함으로써 건축형태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간가도는 중문의 표현방향에 따라 주진입동선을 파악할 수 있고, 도면내 문자의 방향에 의해 주요건물의 입면이나 주진입동선을 파악할 수 있다.

다섯째, 세밀한 기술적 정보가 생략된다.

33) 산릉도감의례의 표현방법의 정체성은 건축도에서 찾을 수 있는 데, 1632년에 최초로 적용된 옹가도가 본격적인 능상각도로 바뀌는 것이 1789년으로 160년 정도의 시차를 가진다.

34) 이 기간 동안 건축도설 체계가 마련될 뿐 아니라 능상각도, 수도각도, 정자각도, 정자각 배설도, 길유궁도, 유문도, 재실간가도, 가재실간가도, 나인간가도 및 능상각입주가도리도 등 10종류가 발생한다.

35) 유문도의 정자각도, 비각도 및 일부의 수복방과 도면발생기의 정자각도에서 나타나며, 수도각도는 입면과 지붕평면을 결합하여 부감적으로 나타낸다.

조선 후기 건축도설 표현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공간구축에 필요한 세부적인 형태 및 기술정보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도설에서 통해서 구조, 마감 및 시공방법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기능적 정보는 생략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것은 당시의 장인들의 기술적 보편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영방식의 표준화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건축적 사고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건축공간의 표현기법이 건축적 사고를 전달하는 언어라는 관점에 주목하고 조선 후기 산릉도감의례의 건축도설을 중심으로 그 표현기법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산릉건축은 충효를 덕목으로 하는 유교는 중요한 프로젝트로서 시대적 건축기술의 결과를 집대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조선시대의 건축공간의 표현은 도면이 발생되기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건물의 종류에 따라 적용하는 방법을 달리하고 있었다.

둘째, 조선 전기 이전의 산릉도감의례 자료가 없어 임란 이전의 건축도설의 존재 여부는 알 수 없지만, 17세기 이후의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할 때, 건축도면은 17세기초에 용가로부터 초보적인 건축도형이 발생하여 전형적인 도면형태로 정착하기까지 170년 동안 걸리며, 대부분의 건축도설은 正祖時代의 顯隆園(1789) 이후 16년간 집중적으로 발생된다.

셋째, 도면표현기법의 중요한 특성은 공간인식 주체를 중심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실용성, 위계성 및 건축정보의 통합적 표현을 중요시하고 있고, 특히 건축도설 체계에 의한 상보적 표현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세밀한 시공기술은 생략된 채 사회적 보편성에 따른 장인의 기술적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

조선 후기 산릉의례의 건축도설 표현이 주는 중요한 의미는 건축생산발달사에서 독자적인 건축표현기술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며, 앞으로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이어져서 오늘날의 건축행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새로운 공간표현의 가능성 모색을 위한 건축설계제도 교육적 실행적 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반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金東旭, 「朝鮮時代 營造組織 研究(Ⅱ)」, 大韓建築學會誌 27卷 113號, 83.8
2. 鄭炳模, 「園行乙卯整理儀軌의 版畫史的 研究」, 文化財 22, 文化財 管理局, 1989
3. 朴益秀, 「朝鮮時代 營造儀軌의 建築圖 研究」, 全南大 大學院 博士論文, 1995
4. 韓再洙, 「韓國建築史學的 變遷過程에 관한 研究」, 漢陽大 大學院 博士論文, 1987
5. 安輝浚, 「옛 궁궐그림」, 대원사, 1997, 서울
6. 徐基元, 「朝鮮朝 中期 圖書畫 畫員에 관한 研究」, 東國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7. 吳洙彰, 「正祖健陵山陵都監儀軌 解題」, 『正祖健陵山陵都監儀軌 上』, 서울大學校 奎章閣, 影印本
8. 文化財 管理局, 東闕圖, 1991

9. 丁若鏞, 『牧民心書』 卷之 四十, 繕摩 工典 第 三 條, 서울 大學校 奎章閣 圖書館
10. CD-ROM, 『朝鮮王朝實錄』, Seoul Systems Co. Ltd., 1995
11. 《懿仁王后山陵都監儀軌》, 奎章閣 圖書館 所藏, 1600
12. 《仁穆王后山陵都監儀軌》, 奎章閣 圖書館 所藏, 1632
13. 《仁祖長陵山陵都監儀軌》, 奎章閣 圖書館 所藏, 1649
14.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 奎章閣 圖書館 所藏, 1659
15. 《明聖王后山陵都監儀軌》, 奎章閣 圖書館 所藏, 1684
16. 《仁顯王后山陵都監儀軌》, 奎章閣 圖書館 所藏, 1701
17. 《宣懿王后山陵都監儀軌》, 奎章閣 圖書館 所藏, 1730
18. 《貞聖王后山陵都監儀軌》, 奎章閣 圖書館 所藏, 1757
19. 《貞聖王后山陵都監儀軌》, 奎章閣 圖書館 所藏, 1757
20. 《英祖元陵山陵都監儀軌》, 奎章閣 圖書館 所藏, 1776
21. 《顯隆園園所都監儀軌》, 奎章閣 圖書館 所藏, 1789
22. 《正祖健陵山陵都監儀軌》, 奎章閣 圖書館 所藏, 1800
23. 《貞純王后元陵山陵儀軌》, 奎章閣 圖書館 所藏, 1805
24. 《獻慶王后顯隆園園所都監儀軌》, 奎章閣 圖書館 所藏, 1816
25. 《正祖健陵遷奉山陵都監儀軌》, 奎章閣 圖書館 所藏, 1821
26. 《孝懿王后健陵山陵都監儀軌》, 藏書閣 圖書館 所藏, 1821
27. 《徽慶園園所都監儀軌》, 藏書閣 圖書館 所藏, 1822
28. 《翼宗延慶墓墓所都監儀軌》, 奎章閣 圖書館 所藏, 1830
29. 《純祖仁陵山陵都監儀軌》, 奎章閣 圖書館 所藏, 1835
30. 《孝顯王后山陵都監儀軌》, 奎章閣 圖書館 所藏, 1843
31. 《文祖綏陵山陵都監儀軌》, 奎章閣 圖書館 所藏, 1846
32. 《憲宗景陵山陵都監儀軌》, 奎章閣 圖書館 所藏, 1849
33. 《純元王后仁陵山陵都監儀軌》, 奎章閣 圖書館 所藏, 1857
34. 《哲宗睿陵山陵都監儀軌》, 奎章閣 圖書館 所藏, 1864
35. 《哲仁王后睿陵山陵都監儀軌》, 奎章閣 圖書館 所藏, 1878
36. 《明成王后洪陵山陵都監儀軌》, 奎章閣 圖書館 所藏, 1897
37. 《孝定王后 景陵山陵都監儀軌》, 奎章閣 圖書館 所藏, 1903
38. 《純明王后裕康園園所都監儀軌》, 奎章閣 圖書館 所藏, 1904

A Study on the Drawing Representation Methodology of Architectural Plans(建築圖說) in Late chosun Dynasty.

Shin, Dong Cheol

(Professor, Kyungwon Junior College)

Abstract

Architectural Drawing has been settled down the very effective means of exchanging their architectural ideas and data on the construction process. However, it was not easy to conserve the original drawings, which aims had been accomplished, at the same time, building was built. The same phenomena were occurred in our traditional architectural construction project, especially before pre-modern age. And do not understand soundly building documentation accepted by craftsmen in the period of earliest Chosun dynasty and how to present their idea and information of architectural as means of sketches and drawings.

So, this paper aimed to clarify the drawing occurrence and the development steps of their rendering, representation methodology in the construction process in Sannungdogam-Uuigue, which were the construction documents of government based on the royal family's tomb and building projects in the late Chosun Dynasty. There are three development stages of architectural space representation, pre-drawing stage, drawing occurring stage and drawing settlement stage. They had been adapted unique drawing presentation method which were drawn by artisan, so called Doseol(圖說) and Painter Hwawon(畫員)

The results are 1. In the Pre-drawing stage, they had been used the systematic explanation method of character

2. Do not have the evidence of adapting drawing before 17th century, it was originated in early 17's century started with Onga(甕家). Onga's Drawing was drawn very elementary skill, and became development, settlement and standardization of their drawing representation around 19th century

3. The drawing presented by client's recognition view of space and building, integrated data within a sheet of drawing with practical and hierarchy and using graphic and description.